

본문에서 발견하기

-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떤 태도로 행하라고 권면합니까?

- 바울이 언급한 성도의 다섯 가지 덕목은 무엇입니까?

- 겸손과 온유는 어떤 종류의 성품입니까?

-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은 누구를 향한 태도입니까?

- 바울은 서로를 어떻게 용납하라고 말합니까?

- 바울은 무엇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합니까?

- 본문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과정에서 사랑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 또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 본문에서 "평안의 매는 줄"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 본문에 나타난 복음은 무엇입니까?

적용하기

- 내가 가장 겸손하기 어려운 관계나 상황은 어디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나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난 주 말씀묵상 (에베소서 3:14-21)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의 감옥에 갇힌 죄수 신분이었습니다. 보통 감옥에 갇힌 죄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한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갇힌 주제에 무슨 말이냐"라는 반응이 나올 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갇힌 자"로 담대하게 소개하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자신의 감금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 안에서"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했습니다. 감금도, 고난도, 자유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와와의 관계가 그의 정체성의 중심이었습니다.

포로라고 하면 속박과 구속이 먼저 떠오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처럼 해방감을 맞습니다. 바울이 감옥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은 것은 자유롭든 갇히든 그런 외적 상황이 중요하지 않을 만큼,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나 능력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자들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분의 크신 계획 안에 우리를 불러 들이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복음이 귀에 들리는 것이 외적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응답하게 만드시는 것이 내적 부르심입니다. 내적인 부르심을 들은 자는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그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회심이 일어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과 동기가 뒤바뀌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저울의 양쪽이 균형을 이루듯,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무게와 자신의 삶의 무게가 정확히 수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과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내가 받은 부르심의 의미와 소망을 더 깊이 깨닫고 아는 데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과 상관없는 계획과 목표를 붙들고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참된 목표입니다.